

전남도 '수소시범도시 조성' 차질 빛나

국토부 공모 가이드라인 갖춘 자치단체 한 곳도 없어 최고 생산량 여수도 난색...수소산업중심지 다짐 무색

여수를 '수소시범도시'로 조성하고 전남지역을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전남도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가 한 도시 안에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이 모두 이뤄지는 '수소 생태계'를 갖춘 수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에 나섰지만 공모 기준을 갖춘 전남지역 자치단체가 전무한데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지역도 없어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공고한 '수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뿐 아니라 500세대 규모의 빌라 등도 무방하고 신규 조성 계획을 제시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입주 민 반발을 감안하면 수소를 연료로 하는 공동주택을 조성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지역 수소 시범도시 조성 예정지로 전국 최고 수준의 부생수소 생산량(전국 2위)을 갖춘 여수조차도 난색을 표하며 시범도시 공모에 나서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5월 수소산업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가 그린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다짐하며 여수에서 '수소 경제 선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게 무색할 지경이다. 전남도가 부생수소 생산기지의 여수산단과 인접한데다, LNG 공급망을 갖춰 수소의 저장-활용이 용이한 점을 들어 여수를 '수소시범도시'로 조성하려는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수 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수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공회화나 기존 아파트 연료를 수소로 대체하기 위한 주민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점을 내세워 시범도시 응모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전남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여수를 비롯한 동부권에

수소연료전지 및 부품·소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한편, 권역별로 중부권을 그린 수소에너지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고 서부권에는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를 구축해 오는 2022년까지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그린수소산업 중심지' 조성계획은 전남의 핵심 현안인 '블루이코노미'의 6개 핵심 프로젝트 중 최우선 리스트에 올라있는 '블루 에너지'의 세부 플랜인데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와 연관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소시범도시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5일부터 신청을 받은 뒤 1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위탁 운영 5년 연장 논의 문체부·광주시 정책협의회, 투자진흥지구 확대 방안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는 23일 광주 시청에서 제2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1년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13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연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문체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체계를 5년 연장 추진하는 것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 활성화와 투자진흥지구 권역 확대 지정, 내년도 국비 증액 지원 등을 건의했다.

두 기관은 또 문화전당의 위상 정립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 국회에

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먼저 추진해 조성사업이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대 문화권 사업 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정책협의회가 구성되면서 2020년 정부예산안에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사업이 올해 805억원보다 285억원 증가한 1천900억원이 확보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아시아 공동체 전승 문화 활성화 등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힘을 모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람사르습지도시 자치단체장회의' 순천시 개막 25일까지 세계 습지 보전정책·교류방안 논의

제1회 람사르 습지 도시 자치단체장 회의가 23일 순천시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개막했다.

25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 총회에서 습지 도시로 인증받은 7개국 18개 도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도시 대표들은 18개 습지 도시의 습지 보전 정책과 도시 인프라로서 습지를 활용하는 사례 등을 공유하고 우호 교류 방안을 논의한다.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습지 도시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공식 발족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천과 창녕, 인제, 제주 등 4개 도시가 참여해 습지 도시 간 정보교류를 하는 등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람사르 습지 도시는 2015년 제12차 람

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 발의해 채택된 제20차 협약에 따라 습지 도시 인증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지난해 제13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7개국 18개 도시가

람사르협약 습지 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우리나라 4곳을 포함해 중국(6곳), 프랑스(4곳), 헝가리(1곳), 마다가스카르(1곳), 스리랑카(1곳), 튀니지(1곳)가 회원국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김정은 "금강산 南시설 철거하라"... 남북경협 빨간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잘못된 일'로 규정하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하는 '초강수'를 내놓으면서 향후 남북 경협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김 위원장은 23일 북한 매체에 보도된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나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을 합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

못되었다"고 남측과의 협력을 통한 금강산관광을 직접 비판한 뒤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합의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발언이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양 정상 이 도출한 9·19평양공동선언은 올해 들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관



남북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바라본 고성 온정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계가 정체된 와중에서도 화해·협력 기조의 '보루' 역할을 해 왔다. 김 위원장이 이를 사실상 번복한 것은 지난해 시작된 대남 협력 기류에서 방향을 틀겠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이 경우 남북관계에 장기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정세브리핑 "부분적 남북협의 재개 시그널"로 평가하면서 "하노이 결렬 이후 대남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나, 남북협력 불가피성을 간접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오늘 오전 11시 아베 면담

"일정한 결과 나올 것"...한일정상회담 기대감 높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東京)의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한다.

최근까지 갈등을 겪어온 한일 양국이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면담의 결과에 따라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도 가능해 볼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총리실은 23일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 시간을 확정 발표하고 "면담은 10여 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만의 양국 최고위 지도자 간 대화라는 의미가 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를 만나 나루히토(德二)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태풍 '하기비스' 피해를 위로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친서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왕 및 일본 국민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한일 대화·협

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면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한국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등 양국 현안의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담 시간이 10여 분에 불과하고 그동안 양국이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리가 아베 총리를 직접 만나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이후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 총리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의 면담 전망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다.

다만 대화 모멘텀이 마련되더라도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에 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한다면 이후의 상황 전개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여전히 있다.

/연합뉴스

입야

바로합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투자 자문

금매물/경매특수물건

법적으로 보장, 010-3605-5000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정충군 안양면 가산리 땅 891㎡ 주택·청고 137㎡ 전양 총용 2억5천
- 곡성군 옥곡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총용 1억9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 건너편 680㎡ 전원생활형 4천만원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땅 1749㎡ 교환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송촌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농장 적합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969㎡ 전원생활에 총용 2억9천
- 무안 동탄면 영산강점 48900㎡ 펜션 14개등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광천파출소 건너편 준주거 1259㎡ 병원 등 다용도 76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명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광명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총용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총용 1억3천

상가 건물

- 운양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운양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6㎡ 매입 2억 청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안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집 있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커뮤니티 매지 73㎡ 2중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동구 산수동5거리 대로점 준주거 1249㎡ 병원·주상복합 적합 법인이전 49억
- 강진군 성천면 상면리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5억
- 요양시설 영광 병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 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www.knews.co.kr / www.이순신해상순례.kr

입진왜란 승전지 탐방 및 남해안 관광을 찾아서...

제11회 입진왜란 승전지 해상순례

| 일시 : 2019년 11월 16일(토)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
| 장소 : 통영유람선터미널

학익전으로 세계 해역 대전사의 한 획을 그은 한산대첩의 통영 한산도 해역 순례와, 제승당을 참배할 전국의 참가자(300명)를 모집합니다. 남해안의 다양한 해양테마가 숨 쉬고 있는 한려수도의 절경도 감상하는 멋진 나들이가 될 것입니다.

◆ 대상 : 전 국민 대상, 300명 추첨 선정
* 만5세 이상·보통차운행, 2014년 이전 출생자 신청 가능

◆ 신청마감 : 2019년 11월 4일(월)까지
[공식홈페이지 www.이순신해상순례.kr]
[관광진흥부(02) 2012-11111 / 관광진흥부(02) 2012-11111]
* 전화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선정 : 신청자 대상 추첨 선정 (지역별, 가족·단체별 고려)
* 선정자 추후 경관선 및 홈페이지 공지

탐방로 : 통영유람선터미널
→ 한산도 일원(한산대첩지 해상순례)
→ 제승당 참배
→ 통영유람선터미널

주최 : 경상남도
주관 : 경남신문
후원 : (사)글로벌이순신연구회 | 문의처 : 055)210-6102~4